

# 세계 에너지계의 대부 워커 엘 시슬러씨를 추모한다.

워즈덤 엔지니어링 회장    金 善 集  
前 한국전력 전무이사



1970년 4월, 정부로부터 금탑 산업훈장을 받은 시슬러씨

**미국** 과 세계 각국의 전력과 원자력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발전에 깊이 관여하여 큰 업적을 남긴 시슬러 (Walker L. Cisler)씨가 1994년 10월 18일 디트로이트시 자택에서 97년의 생애를 마치고 영면하였다. 이날은 우연하게도 발명왕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의 63회 기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총 발전설비용량이 30만kW 미만이던 1956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원자력발전의 국내도입을 적극 권유하고 또 에너지분야 국제교류가 미약하였던 1960년대에 한국이 WEC에 가입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시슬러씨의 서거를 충심으로 애도한다.

원자력발전을 비롯한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오늘날의 발전과 회원국수 100개국에 달하는 WEC활동 현황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발전에 미친 큰 공헌을 새롭게 회상하게 된다.

시슬러씨는 1897년 10월 8일 미국 오하이오주 Merietta에서 출생하고 펜실바니아주 Gradyville 시골에서 성장하였다.

1922년 코넬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 졸업한 후 뉴저지주 PSE&G 전기·가스회사에 입사하였다. 그러다가 1941년 미 연방정부에 신설된 생산관리국에 진출근무하라는 발령을 받았다. 여기서 근무할 때 군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필요로 하는 긴급비상대책용 발전함 (발전용량 30,000kW) 3척의 건조계획을 수립하여 전력부족이 발생하는

지점에 전기를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1943년 Detroit Edison회사 발전담당 기사장으로 발령이 났으나 1945년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부임하지 못하였다. 그는 곧바로 구과과전선에 동원되었다가 1944년 아이젠하워 원수의 요청으로 연합군최고사령부 (SHAEP)의 전력부장으로 취임하면서 대령 (군번 0150193)으로 승진하였다.

노르망디 상륙작전때는 최전선 기지에 달려가 전기, 수도, 가스의 확보에 힘썼고, 또 그가 파리에 입성한 날이 바로 드골장군이 개선한 날과 같다.

1945년 Detroit Edison사의 주임기술자로 복직하여 증전후 경제가 급성장하던 미시간주의 전력공급과 전원개발사업에 전력을 다하였다. 1951년 12월 Detroit Edison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1964년까지 중임을 거듭했고, 1964년부터 사임하는 1975년까지 회장의 중책을 완수했다.

한편 세계에너지회의(WEC) 의장, 에디슨전기협회(EEI) 회장, 1956년에는 미국원자력산업회 회장과 같은 요직에 취임하였고, 또 최초의 고속증식로(FBR) 원형로인 페르미 (Enrico Fermi) 원자로 (20만kW)의 실현에 진력한 일은 너무나도 유명한 업적이다.

1975년 Detroit Edison사의 회장을 사임할 때까지 32년간이나 세계 전기사업의 지도적 역할을 하였다. 1972년에 전기사업계를 은퇴한 고급기술경영자 100여명을 모아 자문협회 Overseas Advisory Associates Inc.(OAAI)를 운영하며 타계할 때까지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오랜 세월동안 에디슨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매년 2월 11일 (에디슨 탄생일)거행하는 IEBC (International Edison Birthday Celebration) 국제행사를 주관하였다. 1966년에 일본에서, 1970년에 한국에서, 1972년에 대만에서 IEBC행사가 개최된 것도 시슬러씨의 특별 배려로 이루어진 것이다.

Detroit Edison사 회장을 사임한 후에는 출선하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대만, 태국, 이집트 등 중근동과 아시아제국 전력개발의 자문활동으로 노경까지 세계각국을 역방하였다.

가족으로는 부인이 19년전에 먼저 타계하시고 두분 사이의 1남(Richard Rippe) 1녀(Jane Eckhardt)와, 6명의 손자손녀, 9명의 증손이 있다. 두 여동생은 펜실바니아주 Gradyville에 살고 있다.

시슬러씨와 한국과의 특별관계를 소개하면 첫째, 1956년 이승만 대통령 집권당시 시슬러씨가 핵연료 성형모형이 든 상자 (Energy Box)를 들고 예방한 자리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적극 권고한 일이 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시작하면 한국은 언제쯤 원전을 갖게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20년후쯤 될 것입니다」라고 시슬러씨가 대답하였다고 한다. 고리 원전1호기의 준공을 보고 시슬러씨는 그때의 대화를 회상하며 껍이나 감회가 깊다고 가끔 말하곤 하였다.

둘째, 1948년 5월 14일 북한이 10만kW 송전을 돌연 단전했을 때의 일이다. 미국정부가 발전함 자코나호(2만kW, 부산부두정박)와 이렉트라호(6천 9백kW, 인천 한국기계구내 정박)를 한국에 급파하도록 결정한 배후에 시슬러씨의 강한 권고가 크게 작용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셋째, 6.25사변 이후의 전력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의 조선전업이 미국으로부터 긴급 구입했던 발전함 레지스탄스 (GE제작 3만kW)는 시슬러씨 작품중의 하나로 그분 따님이 진수에 참여한 발전함이기도 하다.

넷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될 무렵 미국 AID본부가 장기전원 개발계획(10년)을 AID무상원조자금으로 추진,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도 실은 시슬러씨의 적극적인 배후지원의 덕분이었다. 그래서 1963년 J.B.Thomas씨 (미국 텍사스전력회사 사장역임)가 미국 전력전문 기술자 5명을 대동하고 내한하여 토마스 리포트를 작성한

것이 우리나라의 최초 장기전원개발계획이기도 하다.

다섯째, 1966년 2월 시슬러씨의 특별배려로 동경에서 거행된 IEBC국제회의 (에디슨재단과 동경전력 공동주최)에 한국전력 사장을 초청하여 우리 전기사업 대표자가 처음 국제무대에 등장하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 이 국제교류의 기회가 우리가 WEC에 가입하는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시슬러씨는 북한의 WEC가입 활동을 저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은근히 약속하며 한국이 신속히 가입을 신청하도록 권고하였다. 시슬러씨가 소련 에너지장관 「네부로스키」를 움직여 한국이 먼저 WEC회원국이 될 때까지 북한 가입을 보류시켰던 것은 놀랄만한 역사적 사실이다.

여섯째, 1970년 4월 10일 한국의 「전기의 날」 행사를 성대히 거행하게끔 IEBC국제회의를 같은 날 서울에서 공동개최한 것도 당시 에디슨재단 이사장 시슬러씨의 뜻깊은 배려 덕분이었다. 이때 한국정부는 시슬러씨의 그간의赫赫한 공로를 기려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였다. 또 시슬러씨는 대한전기협회에 에디슨장학기금제도를 창설할 계기를 마련하고 금일봉을 회사하여 기념사업의 초석을 마련해 주셨다.

일곱째, 1976년 金榮俊 사장이 한전 6대사장으로 취임한 직후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성수기를 맞게되자 시슬러씨가 OAAI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급 기술자를 한전에 파견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관리기법을 전수하는 업적도 남기셨다.

여덟째, 1980년대초 한국이 고속증식로 (FBR)관계 기술자료를 미국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입하는 요령을 한국전력에 수차례 조언한 바 있었다. 일본이 시슬러씨의 호의로 페르미 (Enrico Fermi)원자로의 기술자료를 양수받은 것과 같이 민간베이스로 추진할 것을 귀뜸해 주었던 것이다.

끝으로 시슬러씨가 전력, 원자력분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에도 깊숙이 관여한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수는 무려 17개며, 명예박사학위도 17개나 수여받았다. 또 생전의 사회봉사 업적이 지대하여 시슬러씨의 이름을 딴 기념 사업이 미국내에 부지기수다. 예를 들면,

- 1969년 디트로이트대학의 정치사회학과에 워커 엘 시슬러 강좌 개설
  - 같은 해 웨인주립대학이 시슬러 기념 도서기금재단 창설
  - 1971년에는 서피리어주립대학 본부청사를 워커 시슬러 건물로 명명
  - 북미시간대학에는 워커 시슬러 경영학교를 설립
  - 디트로이트 에디슨회사 사옥을 워커 시슬러 빌딩으로 명명
  - 미국 ANS(American Nuclear Society)에 워커 시슬러賞 수여제도 설정
- 이외에 미국 각지의 대학도서관과 강당에 시슬러씨의 이름이 많이 붙어 있다.
- 새삼 고인의 생전의 업적과 인자하신 인품을 추모하며 이 글을 바칩니다.